



오라클 통제품 부문의 소헤이브 아바시(Sohib Abbasi) 수석부사장은 모든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관리하는 오라클 국제제품 위원회의 위원이면서, 이 회사의 상호부문 운영을 감시하는 경영위원회의 위원이다.

‘인터오피스’와 웹 카트리지에 기대

지난 1월 20일 엘리스 회장을 비롯한 오라클사의 최고 수뇌진들이 서울을 필두로 아시아 6개도시 순방에 나섰다.

訪韓 인사중 기업환경에 적합한 그룹단위의 컴퓨팅 환경과 기업에 최적화된 전산환경을 기술적으로 보여준 소헤이브 아바시 톨부문 총괄 수석부사장을 만나보았다.

〈月刊 시사컴퓨터 취재부 이영애 기자〉

96년도 DBMS, 애플리케이션, 톨 등 제품별 매출비중과 97년도 예상되는 매출비중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지난해 DBMS는 50~6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애플리케이션은 SAP에 이어 2위이며, 톨은 2억~2억5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오라클은 총매출액에서 95년도 대비 79% 가량 신장됐는데, 오라클 7.x 기반의 서버가 3백62억원으로 전체매출의 81%를 점유했고, 개발도구와 미들웨어 등 톨이 80억원으로

18% 점유, ERP패키지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5억원을 기록했다.

ERP 관련, 한국오라클의 국내 사이트 계약은 활발하나 '오라클 파이낸셜'과 '오라클 매뉴팩처링' 등 ERP 모듈간 긴밀한 통합이 잘 안돼 있다는데.

애플리케이션들은 DB 스키마를 공유하므로 DB 레벨에서 통합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개발툴인 '디벨로퍼/2000'이 국내에서는 워크그룹용으로는 '파워빌더'나 '델파이', '비주얼 베이직'에, 엔터프라이즈용으로는 '포르테'에 밀리는 것이 아닌가.

지난해 본사 집계로 파워빌더가 5천만달러, 델파이 3천만달러, 디벨로퍼/2000은 2억5천만달러, 비주얼 베이직은 2억2천만달러, 포르테가 3천5백만달러의 매출규모를 보였다.

올해는 디벨로퍼/2000 웹 카트리지에 특히 기대를 걸고 있다.

인트라넷 기반 그룹웨어인 '오라클 인터오피스'와 '로터스 노트', 'MS 익스체인지'와의 비교우위를 설명하면.

'인터오피스'에서 웹 서버 콘텐츠와 웹 라이브러리 매니징이 가능하다. 자동 '퍼블리싱'이나 자동 인덱싱, 자동 요약도 지원되며, 비즈니스 측면에서 웹 서버의 저장 내용을 웹 라이브러리를 통해 자동 출판할 수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컨텍스트 서치를 이용, 메일을 요약하거나 주제별 검색 및 정보 관리에 유용하다. 유지비용면에서도 美고객사 경우 1명의 사용자가 1년에

125달러가 들었고, 노츠는 같은 조건에서 1천달러 이상이 소요됐다는 사례가 있다. 그만큼 비용차가 크다.

기술적으로는 워크플로우 개발이 통합돼 있고 문서관리 기능과도 통합돼 있다. 문서의 라우팅으로 전자결재도 지원된다.

노츠나 익스체인지의 웹이전의 전통적 기술인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개발된 것이고, 오라클 인터오피스는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설계, HTTP, IMAP POPtree 표준들을 준수하고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유용한 API와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NC에 처음으로 깔리는 소프트웨어가 인터오피스이다.

‘헛트릭’을 발표했지만 ‘MS 오피스’의 국내 점유율을 볼 때 국내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헛트릭’ 애플리케이션 슈트는 워드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그래픽 등 자바 운영체제에서 운용되는 3개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데 ‘MS 오피스’나 로터스의 ‘스마트슈트’ 등의 사무용 슈트보다 훨씬 적은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MS 오피스는 ‘Big’ 애플리케이션으로 클라이언트인 PC에 인스톨되는 것이고, 헛트릭은 자바로 구현돼 작은 메모리가 요구된다.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MS 익스체인지는 메모리나 HDD 등 자원을 많이 요구하지만, 헛트릭은 실시간 서버사이드에 존재하고 다운로드되는 것이므로 설치하는데 1MB도 필요하지 않다.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클라이언트

가 되므로 여타 소프트웨어도 필요없다. 또, 사용하기가 쉽다. 문서 포맷에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 그래픽 템플릿이 있어 자동 서식이 지원되므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나 워드프로세서로 메일 메시지를 만들 때 별도의 서식 설정을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헛트릭’은 코드명으로 인터오피스에 통합된다. 개인의 생산성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코드명이 헛트릭이다.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제품과 웹 환경 제품의 현재 매출비중과 향후 예상은? 웹 버전이 ‘미션-크리티컬’한 전사적 업무나 금융권 업무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클라이언트/서버 플랫폼은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1명의 사용자당 한해 11,900달러의 유지비가 소요된다.

현재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웹에서 인터넷으로 다시 인트라넷으로 애플리케이션 추세가 변하고 있는데, 인트라넷이 방화벽내에 존재하므로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쓸 이유가 없다. 웹은 썬마이크로사의 자료에 의하면, 1명 사용자당 한해 2천5백달러의 유지비가 든다.

인트라넷 환경이 전개되어도 LAN, WAN 등 기투자자는 보호된다.

CAD/CAM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이 필요할지 모르나 데이터 입력을 주로하는 최종 사용자들이 굳이 클라이언트/서버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클라이언트/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문제발생시 각각

관리해야 하므로 유지비가 높은 것이며, 웹은 중앙에서 한 번 업그레이드하면 같이 적용되므로 유지비가 적고 메모리 용량도 적은 것이다. 금융권도 방화벽내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존재하므로 인증, 패스워드 등 보안 메커니즘이 갖추어져 사용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이나 개발 톨 부문에 있어서 한국시장의 특수성이 있는가. 어떻게 시장을 평가하고 있는가.

톨 시장에서 웹 카트리지, 디벨로퍼/2000을 기점으로 선두를 회복할 것이다. 파이낸셜과 매뉴팩처링은 업무 자동화에 유용할 것이다. 한국시장의 차이점은 언어적인 요구나 지원 등의 문제인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비용절감이나 효과적인 개발을 원하는 요구사항은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디벨로퍼/2000은 자바로 개발됐고, 애플리케이션도 자바가 가능하며, 웹 카트리지, 자바 애플릿 추가 기능이 있어 시장성이 있다.

무엇보다 ‘컴플리트 솔루션’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고객입장에서 업무자동화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과 스택을 받기 원하므로 유리하다.

톨 부문, 애플리케이션 부문의 올한해 제품 개발전략과 마케팅 전략은.

확장가능한 서버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썬 및 IBM과 개념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클라이언트/서버에서 웹으로 전이되면서 MS와 충돌하고 있지만 서버 소프트웨어의 경험은 오라클이 우위에 있으며, 인터넷 자체가 서버 집중적인 기술이다.